

여성, 생명 안전을 질문하다

나를 지키는 글쓰기

꽃벌 김화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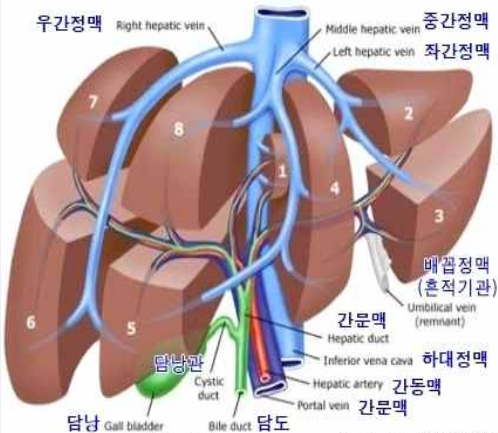


여성 생명 안전. 나를 지키는 글쓰기

- [1주] 여성 생명 안전 - 왜 글쓰기인가? 막 써보는 재미.
- [2주] 내 삶의 이야기 쓰기 - 에세이의 구조, 이야기의 힘.
- [3주] 여성의 글쓰기 - 나는 누구인가, 내 목소리를 찾아서.
- [4주] 함께 쓰기라는 예술 - 합평과 수정이 키운 글근육.
- [5주] 퇴고의 힘 - 달라지는 수정고, 맛깔나는 퇴고!
- [6-10주] (1주 휴가) 추가 합평. 퇴고. 편집회의. 출간 및 북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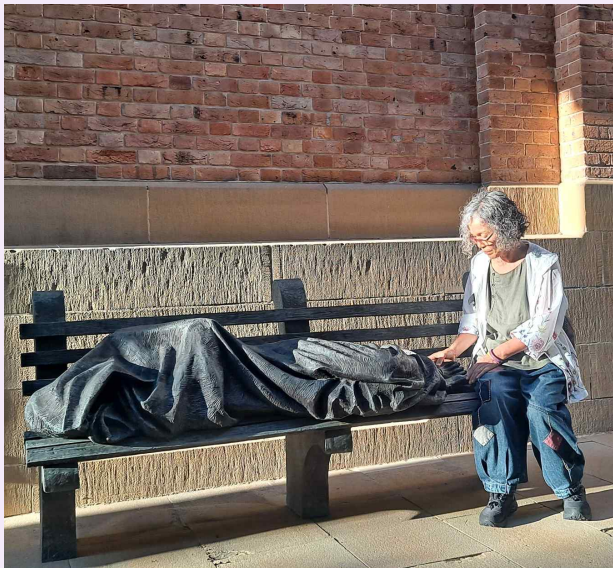
<간 해부도>

우후구역 우전구역 좌내구역 좌외구역
 Right posterior section Right anterior section Left medial section Left lateral section



출처 <http://tgh.amegroups.com/article/view/3589/4327>





“왜 글쓰기인가?”

숙덕숙덕 사모의
그림자 탈출기

김희숙 지음



“사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게 예수 복음
아닌가요?”

생각비행

나는 왜 쓰고 싶지?

내게 말할 기회를 주고 나와 화해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싶어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서.



나는/여성은 안전한가?

- ▲ 지역안전지수(행안부)
- ▲ 지역성평등지수(성평등가족부)
- ▲ 지역여성안전지수(통계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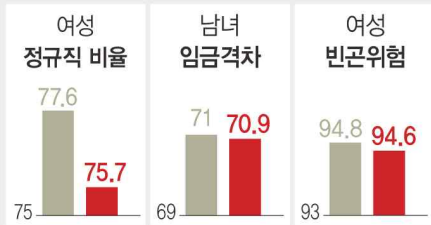
- * 폭력 경험한 여성 비율
- * 여성 10만명당 살인 피해자 비율
- *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의 태도
- * 안전지수
- * 밤에 혼자 걷기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 비율
- *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등 제도
- * 성평등 지수

국가성평등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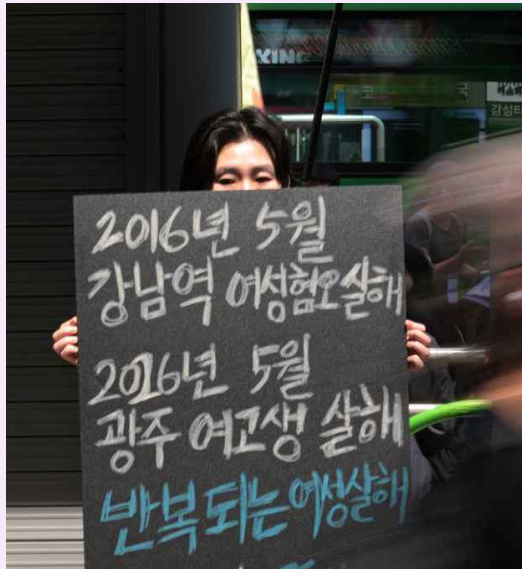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성평등 수준 하락한 3개 영역-전체 7개 (단위: 점)









한국여성의전화 2025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

22.5시간에 1명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

3.98일에 1명

한국여성의전화, 2025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 전문 보러가기: [프로필 링크 참조](#)













안전한 임신중지권은



우리의 권리이다

Q기본소득당

안전한 임신중지권은



우리의 권리이다

Q기본소득당



FLIRT WITH PRIDE THIS MARDI GRAS

SATURDAY MARCH 1ST

CELEBRATE EVERYONE'S MARDI GRAS WITH US AT FLIRT!

11AM - LATE

WE GATHER AT CHAMBERLAIN ST

• OPEN THE WHEEL

• PRIZES & SWAGGATS

• IN-STORE GAMES

• VIBRATOR RACES

• AND MORE!

USE THE CODE PRIDE17 FOR 10% OFF ONLINE OR IN-STORE. THIS CODE IS NOT VALID FOR BULK PURCHASES.

STOP BY STORE THIS MONTH FOR YOUR CHANCE TO WIN A \$500 SHOPPING SPREE THIS APRIL!

QR CODE

afterpay



성명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10대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래의 남성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며 “남성들에 대한 존중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반감을 예로 들며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주권자인 남성 시민들을 폄훼하지 말라. 우리 남성들은 여성 및 소수자 시민들이 겪는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에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다. 인권의 문제를 ‘젠더갈등’이라 일컬으며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구태 정치세력에 ‘존중을 챙김 받는’ 존재가 아니다.



공동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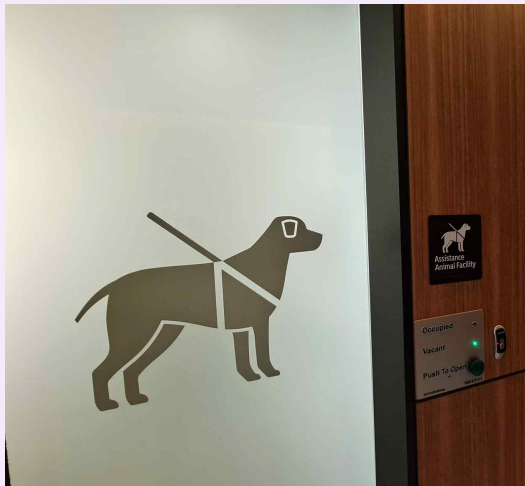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모든 소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자 주권자이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남성들도 다시 한번 파트너와의 관계와 성 문화에 관해 되돌아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 문화를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동의강간죄’ 도입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성차별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우리 사회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평등문화를 가꾸는 남성모임, 평등남’ 또한 이를 위해 멈추지 않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5. 05. 13.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소모임 '평등문화를 가꾸는 남성모임, 평등남', 한국여성의전화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

(낸시 슬로님 에러니, 돌베개, 2023)

누군가 용기를 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때 마법이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가 시작된다.
 우리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복구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작은 '살인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머물면서
 오히려 우리 심장에, 간에, 콩팥에
 차곡차곡 쌓여 절여지고 있다.
 그것들을 우리몸에서 끄집어내
 종이 위로 옮기는 작업이야말로
 모든 의사가 내려야 할 처방이다.

(13-14쪽)



Celebrate

International Women's Day

UQ is hosting a range of events from
Monday 3 to Wednesday 12 March.



Register
for events



안전한 공간, 함께크는여성울림



2025 경기도성명동 공문사업

돌봄글쓰기 2025 북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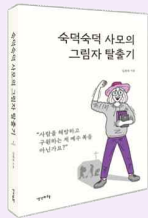
11. 4. (화) 10:30

울림 교육실
죽이문연 · 돌지머집 <만단체>


골레난연	애들정현
나나	영주
배문선희	이연경
리사보경	이혜유
따들	김혜 문질혜
백단비	정하락
보리남준	지혜연
비날성혜	한이팔아
생각영이 이영숙	희유경
신은향	한울
신익	한진
분분	불벌화숙

24인 작가들이 돌봄글쓰기 모음집

경기도 함께크는여성울림 031-482-0505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
(낸시 슬로림 애러니, 돌베개, 2023)

글쓰기가 걷기나 등산처럼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는 왜 쓰려고 할까?

나는 글쓰기 열풍이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자, 삶에 대한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솔한 사례를 목격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경쟁이 심한
나라에서 힘없는 개인은 더 쉽게
다치지만, 마침내 자기 회복을 위해

글쓰기를 선택하고,

쓰는 존재로 살아가며

자신에 대한 긍지를 회복하고자 한다.

-은유 (354쪽)



안전한 모임 안전한 글쓰기 약속문

1. 우리의 다양한 위치성을 고려하여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 상대의 정체성을 함부로 규정하거나 질문하지 않는다.
3.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나이 등 위계 없이 서로 이름 부르며 평어로 말한다.
4. 낯선 의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단하기 보단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질문한다.
5. 소수가 발언을 독점하지 않고, 다름과 부족함에서도 배우는 집단지성을 추구한다.
6. 모든 종류의 혐오 및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7. 글쓰기와 합평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평등과 안전을 경험하는 공부라 여긴다.
8. 모임의 안전을 위해 나-개인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솔직하게 말로 나눈다.
9. 글쓰기와 합평으로 나눈 이야기로 타인을 납작하게 요약하려 하지 않는다.
10. 사진 촬영과 업로드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먼저 구한다.

여성 안전? 막쓰기로 몸 풀기

1. 글쓰기에 온 기분, 1분 자기 소개

2. 시/에세이 낭독 수다 후 막쓰기

소재와 주제 / 꼭 하고 싶은 말 / 아하!

3. 막쓴 글 낭독과 마무리 나눔

모방시 쓰기

탈출기 / 천양희

강 / 황인숙

괴물 / 최영미

시 형식과 흐름 그대로 유지하며 모방

1. 탈출기 / 천양희(1942~)

나는 오늘도 억울하게 매를 맞는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너의 부속품이 될 수는 없어
나는 너의 덧불이개가 될 수는 없어
서른 살의 오기 시퍼런 칼날 품고
원수같이 너에게로 쳐들어간 날
살려 줘, 살려 줘
외치던 아가리 찢어지고
눈깔을 빼어 버려
벼락이 떨어지고
암흑천지 웅크린 짐승처럼 돌아누웠지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야
팔려간 노예는 더욱 아니야
전신에 기름을 빼내어
말라비틀어질 때까지
높지대 구렁 속에
네 몸통 속에 처박힐 순 없어
나는 오늘도 기진맥진
네 폭력의 포위망을 탈출한다.

2. 강 / 황인숙(1958~)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
심장의 별레에 대해 옷장의 나방에 대해
찬장의 거미줄에 대해 터지는 복장에 대해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물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 이인성의 소설 제목 '미쳐버리고 싶은, 미쳐지지 않는'에서 차용.

3. 괴물/ 최영미(1961~)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어느 출판사 망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

나는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En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던지면

새로 산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 봐

코트자락 휘날리며 마포의 음식점을 나왔는데

100권의 시집을 펴낸

“En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이 똥물이지 뭐니”

(우리끼리 있을 때) 그를 씹은 소설가 박 선생도

En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탈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En이 노탈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자~~~ 글쓰기로 놀자!

꿀벌 김화숙

휴대폰 : 010-3918-9217

이메일 : dream40k@hanmail.net

브런치 : <http://brunch.co.kr/@dream40k>

블로그 : <http://blog.naver.com/kkulbol>